

[보도자료] 쿠팡, 어른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'키덜트샵' 오픈

2020. 4. 3.



- 프라모델부터 게임기까지 91만여 개 완구/취미 상품 한자리에
- 레고, 마블, 건담 등 키덜트 베스트 브랜드 제안으로 쇼핑 편의성 높여

2020. 04. 03. 서울 — 쿠팡은 어른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'키덜트샵'을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. 어린이(Kid)와 어른(Adult)의 합성어인 키덜트(Kidult)는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뜻한다.

쿠팡은 '키덜트샵'에서 91만여 개 완구/취미 상품을 한자리에 모았다.

고객은 '프라모델' '피규어' '다이캐스트/모형' '드론/헬기RC' '보드게임' '퍼즐' 'RC카/바이크' 등 총 11개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. 또 '레고' '마블' '플레이스테이션'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준비한 '베스트 브랜드' 코너를 마련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.

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.

▲비스트킹덤 헬크버스터 액션피규어 ▲원피스 스태미드 피규어 모음 ▲DJI 드론 ▲레이싱 레프리카 전동 RC카 모음 ▲SNK 네오지오 미니 게임기 ▲로지텍 G813 게이밍키보드 ▲후지필름 XF10 라인에디션 카메라를 최대 55% 할인된 가격에 제안한다.

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"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잡은 키덜트 관련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"며 "더 좋은 고객 경험을 위해 완구 및 취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"고 전했다.

한편, 쿠팡은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모은 다양한 기획전과 테마관을 운영할 계획이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